

청년몰에서 보고... 먹고... 즐기고...

전주서부시장상점가 '청춘시절' 그랜드 오픈... 쇼핑·문화·체험 등 복합몰 형태 청년 창업공간 실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과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전주서부시장상점가에 문화, 쇼핑, 볼거리가 융합된 복합몰 형태의 전통시장 청년몰 '청춘시절'을 청년상인모집, 창업교육, 컨설팅, 신축, 시설공사 등 1년 여간의 준비 끝에 지난 8일 시장 내 청년몰에서 본격 개장을 알리는 그랜드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몰 '청춘시절'은 시장 북편 고객지원센터 옆에 345m² 규모의 2층 건물로 신축되고 창업점포 20개(점포당 3평)가 조성되었으며, 음식점의도 시 전주의 지역 특색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젊은층이 좋아하

는 디지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베이커리&디지털 타운' 컨셉의 체험형 복합테마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청년몰 오픈식은 김승수 전주시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민권 상임이사, 전북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한 지역기관장, 타시장상인회장, 청년상인, 시장상인,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 2부로 나뉘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하와 격려로 성황리 진행되었다.

청년몰 '청춘시절' 조성은 중기부의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지난해 6월 전주시가 선정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쇼핑, 문화, 체험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복합몰 형태의 청년 창업공간으로 집적화하고,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곳이 잘되고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청년실

업 해소와 서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청년상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중요하며, 앞으로 새로운 지역 명소를 거듭나기를 바란다." 밝혔다.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선택한 청년 상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청년몰 '청춘시절'이 전주시의 역사 문화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꽃피길 기대하고, 시민들께서도 이곳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앞당기도록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란다." 밝혔다.

/김민근 기자



“위기를 기회로... 강한은행 될 것”

전북은행, 창립 48주년 기념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창립 48주년을 맞았다.

전북은행은 8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1969년 창립 이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오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 은행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은 물론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임용택 은행장은 이날 창립 기념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앞으로 100년을

넘어서는 강한 은행이 되기 위해 구체적이고 특화할 수 있는 계획 및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매 금융을 기본 축으로 하는 차별화된 영업 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와 고객 니즈에 맞는 전략상품을 지속해서 발굴기로 했다.

임 은행장은 “지난 48년 동안 오늘의 전북은행이 있기까지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준 고객과 주주, 지역사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질적 성장으로 내실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익원의 다각화, 지역 사회와 동반자적 상생 경영 등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맥시칸치킨, 걸그룹 에이프릴 브로마이드 증정 이벤트

30년 전통의 치킨 프랜차이즈 맥시칸치킨(대표이사 문경필)이 전속 모델인 걸그룹 에이프릴 2018년 캘린더가 들어있는 브로마이드와 타상용 카렌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1일부터 맥시칸치킨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브로마이드를 요청하는 모두에게 2018년 캘린더 브로마이드를 선착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기로 했다. 행사 참여 미 체인점이 있을 수 있으며,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마감된다.

이벤트로 증정하는 브로마이드에는 연말과 새해에 맞춰 전속 모델인 에이프릴의 귀여운 크리스마스 분장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캘린더 브로마

이드를 통해 2018년 한해 달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에이프릴 멤버들의 생일까지 표시되어 있어 에이프릴 팬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맥시칸치킨 관계자는 “맥시칸치킨에 꾸준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소비자들을 위해 2018년 캘린더 브로마이드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에이프릴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맥시칸치킨의 ‘순살닭장정’은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제품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닭장정의 진리’라고 불릴 정도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치킨과 밥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치밥’을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장영환 기자

농진청, 중앙아메리카 니카라과에 센터 개소

농촌진흥청은 중앙아메리카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 니카라과 센터 개소식을 지난 6일(현지시간) 개최하고 니카라과의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허건량 농진청 차장을 비롯해 니카라과 외교부 차관, 농업부 장관, 농업기술청(MINTA) 청장 등이 참석했다.

농진청은 지난 2015년 11월 니카라과 정부로부터 코피아 센터 설치 요청을 받고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3월 코피아 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농진청은 니카라과와 벼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토마토와 파프리카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의 우수한 품종과 재배기술 등을 현지에 도입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허건량 차장은 “니카라과는 한국전 장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고마운 국가”라며 “코피아 센터를 통한 양국 간 농업기술협력으로 니카라과의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금감원, 초등학생과 즐거운 금융 이야기 행사 개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과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7일 순창군에 위치한 적성초교 및 동계초 학생을 초청해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즐거운(fin) 금융 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소재 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금융교육은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금융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조기진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행사를 지원하고 함께 참여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금융 이야기’라는 주제로 참여 학생들에게

보드게임을 활용해 돈 모이기, 돈 쓰기 등의 합리적인 돈 관리 방법과 저축·투자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서 통장 만들기, 예금 및 출금 해보기, 세계화폐 및 금고 견학 등 은행에서 이뤄지는 금융 거래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금융감독원 이점수 전북지원장은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의 저축·소비 등 돈 관리에 대한 현명한 습관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현대차, 최고의 안정성 ‘입증’

美 충돌 테스트 최고 안전한 차로 6개 차종 선정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 받은 쾌거를 달성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충돌 테스트 종합 결과에 따르면 최고의 안전 차량에만 부여하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 등급에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업체 중 가장 많은 차종을 이름에 올랐다.

▲현대차 산타페, 맥스크루즈, ▲제네시스 브랜드 G80, EQ900, ▲기아차 K3와 쏘울 등 총 6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모델로 선정된 것. 현대차그룹에 이어 스바루가 네 차종, 벤츠는 두 차종 그리고 도요타, BMW, 포드는 각각 1개 차종이 최고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결과는 올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는 IIHS가 강화된 평가 기준을 추가한 상황에서 얻어낸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미국 자동차 충돌 테스트 중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출시된 수백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다.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톱 세이프티 픽’ 등급을 매긴다.

올해는 이번 연도에 출시된 2018년형 모델들에 대해 충돌 테스트를 실시, 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안전성을 보인 15개 차종을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로 선정했다.

특히 IIHS는 올해부터 기존 운전석에

만 적용하던 스몰 오버랩(Small Overlap) 평가를 조수석까지 확대했으며, 이에 더해 전조등(Head Light) 성능 테스트까지 추가했다.

까다로운 평가 조건이 추가되면서 IIHS로부터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은 차종은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 작년에는 총 38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15개 차종에 불과하다.

현대차그룹은 최고 안전한 차량에 최다 차종을 이름에 올림으로써 그동안 차량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온 성과를 공식 인정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앞으로의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미국에 출시될 G70 등 신차들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통칭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IIHS 충돌 테스트 종합결과를 통해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차의 높은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IHS가 충돌 테스트에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 차량에 부여하는 ‘톱 세이프티 픽’ 등급은 총 47개 차종이 선정됐다.

‘톱 세이프티 픽’ 등급에서도 현대차그룹은 총 10차종이 선정된 도요타에 이어 9개 모델을 이름에 올리는 등 두 번째로 많은 차종을 이름에 올렸다. /원주=이종복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